

◆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s in 1972

大學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孫 成 祐
(建國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課長)

1. 머릿말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界는 이렇타 할 일이 없이 卞年作을 거둔 것 같다. 구태여 말을 더 하자면 7월 18일에 東國大學校에서 全國私立大學校圖書館協議會가 創立되었다고나 할까, 이제 지난 1년간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73년의 전진을 위한 기틀이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모든 大學도서관들은 動亂 이후 수복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과연 아니며 大學의 歷史와 비례해서 겨우 大學도서관도 成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成年이 되었다고 自己 혼자서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大學도서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다. 글과 말로는 흔히 大學이라는 곳은 學問하는 지성인들이 모여서 사는 특수지역이라고 한다. 이곳의 生活人은 學生과 教授들이며 이들은 자기들에게 必要한 연구자료를 찾고 있다.

한편 그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保管하며 이들에게 奉仕하는 곳이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이 올바르게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그 大學의 生活人들이 제대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는데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72년은 어떠하였는가 이모 저모로 더듬어 보고자 한다.

2. 이모 저모

① 작년과의 비교

1971년의 우리 나라 大學도서관수(초급대, 전문교 포함)는 138개교였다. 1972년의 集計에 依하면 164개교로 급격히 增加되었다. 도서관의 獨立建物은 71년의 경우 69개였는데 72년에 와서는 57개로 감소된 것이다. 먼저 以上の 두 가지를 가지고 分析해 보면 學校數가 급격히 增加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으나 과연 우리가 바라는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다. 주로 增加된 學校類는 간호학교 및 各種學

校인데 그중 간호학교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이는 近來 人力輸出의 붐을 탄 特殊사정으로 짐작 되나 교육은 百年大計 아니 그 이상의 것이라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도서관 시설은 형태라도 갖추고 있는지? 다음은 도서관의 獨立建物 문제다. 71년에 比하여 12개관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統計의 不正確한 點도 있겠으나 大學全體 建物 運營上 큰 建物內에 부족되는 것이 原因이라 하겠다. 仁川의 모 綜合大學은 昨年까지 獨立建物이었는데 72년에 本部 건물에 舍流되어 도서관에서 使用하는 建物 坪數는 넓어 졌으나 그전 보다 환경은 후퇴하였다고 筆者는 보았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속히 施設基準 以上の 獨立建物을 어느 大學도서관이든 확보하는 것이 時急한 과제다.

열람좌석수는 작년 보다 3,871석이 增加된 것을 보면, 時代的인 요청에 따르는 前進이라 보겠다. 우리 나라 大學도서관에 종사하는 全體職員數는 1,278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71년에 比하면 66명의 人員이 增員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전문직 직원은 非專門職數의 1/2에도 미급한 실정이다. 전체 도서관수에 比한 平均 1개館의 職員수는 7명으로 되나, 유명 무실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직원이 서무과의 직원으로도 때에 따라서는 문감하는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72년 集計에 依하면, 大學 총장서수는 6,325,409卷으로 나타나 있다. 昨년에 比하면 699,514卷이 增加되었으며 1개校 平均 4,265卷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근 10여년간 各大學 主로 私立大學에서는 大學設置基準令에 依한 藏書數 확보를 위해 量的인 面에 神經을 많이 써서 藏書의 內容이 상당히 저하되었으나, 近來에 와서는 차차로 정상 궤도에 오르는 느낌을 주고 있는 현상은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72년도 集計에 依한 연간 利用 책수는, 5,869,052卷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71년에 比하여 794,271卷의 책을 더 利用한 것이 되며, 奉仕 대상자수 246,498명에 比하면 연간 1인당 24卷을 열람한 結果가 된다.

豫算額中에서 資料購入費를 分析하면 71년의 경우

261, 532, 250원이며 72년에는 520, 188, 124원으로 昨年보다 258, 655, 874원으로 거의 培額이 增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좀더 仔細히 보면 大學인 경우 平均 1個館 豫算額은 4, 929, 160원이며, 초, 전교인 경우 平均 1個館 豫算額은 812, 100원이다. 以上에서 數字로 볼 때에 資料購入費가 多少 적은 편이 되나, 우리 나라 高等教育機關의 피치 못할 事情이라 생각하면서도, 다음 몇가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筆者는 우연하게도 지난 6월에 全國 主要都市의 大學圖書館을 巡訪하면서 느낀 點이 많았다. 그것은 불과 몇개의 單科大學을 除外한 나머지 大多數 大學들의 圖書館 資料購入 豫算이 수준이하였었다. 忠州의 이름 있는 국립 C大學과 私立 C大學을 訪問하였을 때에 同職者의 立場에서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 하는 結論을 즉시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다른 大學도서관에 比하여 乏乏된 움직임이었으며 그 原因은 간단하였다. 兩大學은 1년 자료구입비가 2百萬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形편에 있었으며 其他 地方과 서울에서도 명색이 大學도서관이지 高等學校도서관 보다도 資料購入費가 적은 것을 發見하였다. 또 이상한 것은 初, 專校도서관이다. 그 중 地方의 몇몇 教育大學을 訪問한 結果 平均 3百萬원의 자료구입예산이었다. 현재 전국에 教育大學이 16個校가 있는데 平均 자료 구입예산이 3百萬원이라 가정하면, 4, 800萬원이 될 것이다. 그러하면 全國의 初, 專校 자료구입비 5, 600萬여원에서 教育大學分을 除外하면 800萬원이 남는데 16個 교육대학을 제하면 70個 初, 專校中에서 56個校가 된다. 800萬원을 56個校로 나누면 平均 15萬원 정도에 해당된다. 이 결과 교육대학의 예산을 제외하면 54個 初, 專校 자료구입비는 이름이 구입비지 거의 無라는 결론이 주어지며 이들 初, 專校의 운영자들이 다시 한번 反省할 點이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② 圖書館大會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도서관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第11回 全國圖書館大會를 9月 13, 14日(兩日間) 大邱의 啓明大學에서 開催하였다. 이번 大會도 昨年에 이어 두번째로 4個館種이 한 자리에 모인 綜合大會로 열렸는데 全國에서 약 600여명이 모여 盛況을 이루었다.

特別講演에는 李瑄根博士가 韓國近代社會와 文化遺産이란 題目을 가지고 했으며, “情報의 活用과 國家發展”이란 演題로 韓相準博士가 하였는데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다음 날은 관중별 分科會가 있었는데 大學도서관 分科會는 100餘名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大學院 二層 세미나실에서 會를 가졌다. 먼저 弘益大學校도서관의 한상완 선생이 國家發展을 위한 大學教育改革과 大學도서관의 役割을 中心으로 한 “大學教育

改革과 大學圖書館의 相關關係에 關한 研究”란 題目으로 發表하였다. 다음은 서라벌藝大 도서관장 崔成眞先生이 “大學圖書館 資料處理의 機械化”—오늘 우리에게도 必要한가—라는 題目으로 약 50분간 發表하였으며 계속하여 두 主題發表에 對한 질의 응답 및 討論이 있었다. 이어서 各 分科別 會議에 對한 報告가 있었는데 大學도서관分科(報告 崔成眞氏)에서는 放送通信大學生들이 自己의 居住地에서 必要한 도서관 資料를 入手하여 工夫할 수 있도록 全國도서관이 寬大한 措置를 取하는 決議를 하는 한편 本大會에서 採擇되는 건의에는 이를 반드시 實現시킬 수 있도록 內容을 具體化시키고 계속적인 노력을 傾注할 것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全國도서관 大會에서 채택된 건의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④ 사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요망.
- 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사서직종 삽입요망.
- ⑥ 학교도서관의 운영비 및 도서관구입비 확보요망.

③ 大學圖書館의 모인

A. 國公立大學圖書館 館長 및 사서장회의

國公立大學 圖書館의 館長 및 司書長 회의는 매해 開催되어 그들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昨年에는 6월과 11월에 忠南大學校와 全北大學校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討論과 發表會가 있었는데 今年에는 10월 24일에 갖기로 되어 있었으나 事情에 依하여 아마도 筆者가 이 글을 쓸 때까지도 會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B. 韓國醫學圖書館協會

大部分이 醫科大學圖書館이 會員으로 되어 있는 이 모임은 지난 4월 1일 카톨릭의과大學 교수실에서 1972년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신임회장에는 중앙대학교 중앙의료원장 윤덕선 박사가 피임되었고, 전무 이사에는 운영대(카톨릭의대 사서장)선생이 유임되었다.

C. 全國私立大學校圖書館協會 創立

지난 7월 18일 全國私立大學校도서관 協會가 창설되었다. 全國의 19개 私立大學校中 16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東國大學校 小講堂에서 創立 總會를 갖고 協會 定款 第26條에 의거한 산하단체로 창립된 것이고 會則에 의한 任員 選出을 하였는데 幹事長校에는 高麗大學校, 幹事校에는 東國大學校와 成均館大學校가 選出되었다. 앞으로 年 2回 程度로 총회와 임시총회를 갖으며 私立大學校도서관의 협의체로서 여러가지 공동관심사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안다.

④ 圖書館의 相互協助

도서관의 자료교환, 상호호차, 정보교환 및 기타 方法에 依하여 圖書館 相互間에 협조의 결과는 유효적

절한 활용과 봉사를 위해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方法이라고 본다. 現在 相互協助에 관해서 活潑히 실시되고 있는 것은 國立中央圖書館에서 상호 대차에 관한 모임이 있는 후 부터라고 본다. 이것은 상당한 뜻이 있으며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國立中央圖書館에서 綜合한 外國圖書目錄이 첫째 卷이 이미 나왔고 두번째 卷이 계속 나오기 바란다. 전기한 바와 같이 全國 私立大學圖書館協議會가 이미 창립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도 상호 대차가 이루어질 것이며 各大學은 地域의인 問題를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내에 있는 大學圖書館 사이에는 도서관 상호간에 情報를 교환해서 주어진 예산을 적절히 使用함과 貴重한 외화를 절약하는데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現在 實施되고 있는 新촌을 中心으로 한 Y,E,S, 大學은 그 例가 되겠으며 앞으로는 Y,E,S,H,로 發展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3. 바 람

① 圖書館 資料 및 施設

圖書館 資料 및 施設은 그 圖書館의 豫算과 직접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겠다. 다시 말해서 어떤 大學圖書館에서는 資料購入費 豫算마저도 없이 大學 運營者의 기본에 따라 그때 그때 자료구입비가 형성되는 ㅅ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예산도 그 大學의 피치 못할 事情에 따라 使用할 수 없는 大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서관의 자료라 하면 基本資料가 單行本, 學術誌와 新聞 其他等이 될 것이다.

現在 大學도서관 全體가 所藏하고 있는 圖書의 數는 昨年 보다 東洋書가 540,409卷이 增加되었으며 西洋書는 159,105卷이 增加되었다. ㅅ합 699,514卷이 增加되었다. 이것은 大學 全體에 對한 平均 1個校의 증가 圖書數는 4,265卷이 된다. 따라서 現在 大學 全體가 所藏하는 東洋書數는 3,744,542卷이고 西洋書는 2,580,867卷으로 ㅅ 6,325,409卷이 된다. 다음에 雜誌의 內容을 살펴 보면, 大學에서 보는 國內 雜誌數는 15,162種이며 國外 雜誌數는 14,943種으로 ㅅ 30,105種이다. 國內 雜誌가 國外 雜誌보다 219種 더 많은 셈이 된다. 그러나 金額面에서는 國外 雜誌價가 월등히 많으며 外國 雜誌의 경우 自然科學 系統의 雜誌가 많고 ㅅ히 醫學系 雜誌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新聞은 國內 新聞이 絕對多數이며 ㅅ수가 4,087種이며 國外 新聞 488種이다.

施設面을 살펴 보면, 문교부에서 ㅅ정한 大學設置基準令에 ㅅ서관에는 閱覽室, 定期刊行物室, 書庫, 事務室을 ㅅ출 것 또 열람실에는 학생 정원의 1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ㅅ치할 것을 ㅅ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너무나 ㅅ성한 點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ㅅ정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0년 ㅅ에 만들어 ㅅ었으니 그 ㅅ의 ㅅ정으로는 그 ㅅ도의 ㅅ실 ㅅ정도 ㅅ분하였을지도 모르나, ㅅ재의 ㅅ大學도서관이 ㅅ당면하고 있는 ㅅ실과는 너무나 ㅅ리가 ㅅ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오늘날의 ㅅ大學도서관에는 ㅅ의 ㅅ事實外에도 ㅅ參考圖書室, ㅅ指定圖書室, ㅅ視聽覺室, ㅅ文獻複寫室, ㅅ적당한 ㅅ휴게실이 ㅅ絕對로 ㅅ必要하기 ㅅ 때문이다. 그리고 ㅅ建物을 ㅅ 살펴 보면 ㅅ大學圖書館의 ㅅ大部分의 ㅅ建物이 6.25 동란을 ㅅ치고 나서 ㅅ워진 것으로서 ㅅ비교적 ㅅ近來에 ㅅ建築되었으나 ㅅ다시 ㅅ할 수도 없는 ㅅ문제등 ㅅ여러 가지 ㅅ문제點이 ㅅ 많아진 것이다. 이들 ㅅ建物은 ㅅ圖書館의 ㅅ機能을 ㅅ 무시한 그 ㅅ設計에 있다고 보아진다. 적어도 ㅅ도서관 ㅅ建築專門家의 ㅅ의견을 ㅅ참작하지 않고 ㅅ建築한 ㅅ데서부터 ㅅ문제點을 ㅅ 가져 오게 하였다. ㅅ例를 들면 ㅅ建國大學의 경우 ㅅ외형으로는 ㅅ보기가 ㅅ참 좋다. 그러나 ㅅ內部를 ㅅ 살펴 보면 ㅅ書庫와 ㅅ貸出室은 ㅅ라비를 ㅅ지나서 ㅅ各各 있는 ㅅ關係로 ㅅ貸出臺를 ㅅ만들어 ㅅ놓았으나 ㅅ使用을 ㅅ못하는 ㅅ실정이다. 그리고 ㅅ大部分의 ㅅ大學도서관이 ㅅ장기적인 ㅅ計劃없이 ㅅ저은 ㅅ관제로 10여년이 ㅅ지난 오늘날에는 ㅅ다시 ㅅ增築내지 ㅅ새 ㅅ건물을 ㅅ짓는 ㅅ형편이다. 그리고 ㅅ과히 ㅅ찬성할 수 없는 ㅅ공통점을 ㅅ발견하였다면 ㅅ서울, ㅅ地方한것 없이 ㅅ教育大學은 ㅅ거의가 ㅅ獨立건물을 ㅅ갖지 ㅅ못한 것과 ㅅ內部도 ㅅ규모가 ㅅ어느 ㅅ大學을 ㅅ가나 ㅅ비슷하며 ㅅ藏書數도 ㅅ비슷하다는 ㅅ點이다. 하루 ㅅ속히 ㅅ獨立 ㅅ建物과 ㅅ內的面에 ㅅ充實할 것을 ㅅ바란다.

② 奉仕 및 職員

大學圖書館은 ㅅ學生 및 ㅅ敎授가 ㅅ효과적으로 ㅅ圖書館 ㅅ資料를 ㅅ利用할 수 있도록 ㅅ도와주고, ㅅ學生의 ㅅ지적 ㅅ發展을 ㅅ위하여 ㅅ도서관을 ㅅ利用하도록 ㅅ습관을 ㅅ育成하며, ㅅ교과 ㅅ이외의 ㅅ名著等에 ㅅ취미를 ㅅ위한 ㅅ讀書를 ㅅ권장하고, ㅅ敎授나, ㅅ大學院生의 ㅅ研究活動에 ㅅ도움이 ㅅ될 수 있는 ㅅ모든 ㅅ奉仕를 ㅅ하는 ㅅ외에도 ㅅ독서하는데 ㅅ不便 없이 ㅅ하기 ㅅ위하여 ㅅ圖書館 ㅅ주위 및 ㅅ內部的 ㅅ환경 ㅅ조성과 ㅅ나아가서는 ㅅ열람실의 ㅅ냉방에 ㅅ對한 ㅅ奉仕도 ㅅ게을리 ㅅ하지 ㅅ않아야 ㅅ되겠다. ㅅ금년중 ㅅ圖書館에 ㅅ出入한 ㅅ閱覽者數는 5,384,551명이고 ㅅ館內 ㅅ圖書貸出 ㅅ책수는 3,757,810책이며 ㅅ館外 ㅅ貸出數는 2,111,342책이다. 이것은 ㅅ全體 ㅅ열람 ㅅ대상자수 246,498명으로 ㅅ보면 1人 ㅅ平均 1년간에 24책을 ㅅ본 셈이 된다. 이상은 ㅅ대체적인 ㅅ개론에 ㅅ불과하며 ㅅ무엇이 ㅅ奉仕인가를 ㅅ大學當局者도 ㅅ알아야 ㅅ하겠다. ㅅ결으로는 ㅅ체면 ㅅ유지가 ㅅ되는 것 같은데 ㅅ事實은 ㅅ그렇지 ㅅ못한 ㅅ상태다. 왜 ㅅ그러한가 ㅅ하면 ㅅ高等學校에서 ㅅ進學하는 ㅅ거의 ㅅ全部의 ㅅ大學生이 ㅅ도서관 ㅅ利用法을 ㅅ배우지 ㅅ못하고 ㅅ大學에 ㅅ오는 경우가 있고, 또 ㅅ다른 ㅅ하나의 ㅅ圖書館이 ㅅ제대로 ㅅ機能을 ㅅ發輝하지 ㅅ못하면 ㅅ奉仕라는 ㅅ말을 ㅅ하기가 ㅅ어려울 것으로 ㅅ본다. ㅅ參考室, ㅅ定期刊行物室, ㅅ指定圖書室, ㅅ나아가서는

貸出室도 奉仕를 맡은 部分인데 우리 大學圖書館 分野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圖書館이 몇 館이나 되는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奉仕面에서 일하는 司書들은 경험, 實力이 있는 司書들이어야 되는데 各級大學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유능한 司書의 絕對數가 不足하다는 理由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大學圖書館에 勤務하는 職員에 대하여 論하고저 한다. 그에 앞서 몇 마디 大學에서 圖書館의 위치를 알아보자 外國에서는 圖書館이 그 大學의 一部가 되어 있는데 大部分의 우리 나라 大學에서는 附屬機關으로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 과쟁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상당하다. 그것은 學校本部가 무엇을 하든지 絕對的이고 圖書館은 항상 다음의 서열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大學社會에서 圖書館은 學問의 中心地인데 부설 기관으로 뒤에 미루어 놓고 있으면 圖書館이 올바른 成長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本部에서 근무하다. 말썽이 나면 유배 보내는 式으로 圖書館에 보내는 식의 人事行政을 하는 大學도 있으니 사람 머리수를 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고 진짜 머리를 짜내어 奉仕하는 곳이라는 事實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와 같은 요소나 가능성이 있으면 大學의 圖書館이 빛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72년의 大學圖書館에 從事하는 職員의 동태는 전문적 직원이 昨年보다 19명이 증원되었으며 非專門職 職員은 47명이 증원되어 도합 66명이 증원된 실정이며, 現在 大學圖書館에 근무하는 全體 職員數는 1,278명이다. 專門職 職員數는 大學圖書館 총 직원수의 32%(昨年과 같음)를 차지하고 있으며 非專門職은 68%를 점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 직원수와 大學의 총 奉仕對象者數 246,498명에 비교하여 보면 도서관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수는 198명이 된다.

4. 맺는 말

도서관수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전에 內容의 充實을 期하기 바라며, 164個 大學, 初, 專校中에서 獨立建物을 차지하고 있는 圖書館은 57개 館에 불과하다. 73년에는 적어도 半數以上이 獨立建物을 차지하여야 되겠고 참신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다.

大學圖書館에 從事하는 職員 1,278명이라면 絕對多數가 不足한 실정인데 불과 32%에 해당하는 專門職으로서의 圖書館에서의 참다운 奉仕라는 것을 바라기 힘들다.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專門職으로 73년에는 교체되길 바라고 參考奉仕, 圖書整理, 司書職의 지적 향상을 期하여야 되겠다.

문고당국은 대학설치기준을 좀더 내용면에서 충실을 期할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아량있는 감독을 하여주기 바란다.

명색이 대학도서관이지 고등학교 도서관보다 못한 도서관을 유지하는 大學에서는 하루속히 大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體面을 세워 주기 바란다.

大學圖書館의 각급 모임체는 모임을 위한 모임이 되지 말고 더욱 알찬 모임이 되기 바란다.

大學에서는 圖書館의 管理層과 中間 管理層을 유능하고도 도서관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면 한낱 자리를 지키는 관리층이 되기 쉬우니 補職을 주기 위한 임명은 삼가하기 바란다.

대학의 最高運營者는 圖書館의 資料購入費가 全體 당해 大學豫算의 몇% 이상은 주어야 된다는 확고한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모든 豫算을 짜고 남으면 資料購入費로 配定을 한다는 式의 사고 方式을 버려야 大學의 發展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73년부터는 우리 大學圖書館界가 靜에서 動으로 더욱 활발히 움직이는 圖書館이 되기 바란다.

鄭駙謨 編

韓國文獻記號表

中央大學校圖書館學會, 1972

이 記號表는 人名이나 地名이나 主題名등 어떠한 對象語이든 記號化할 수 있는 종래의 이른바 圖書記號表로서, 어떠한 記錄類나 필름이나 슬라이드나 기타의 非圖書資料의 整理를 위한 記號등 多方面에 걸쳐서 記號의 重複이 거의없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記號表이다.

교육대학 10돐 기념

전국교육대학 논문목록 색인

서 경 모 편

4.6배판 · 181면 · 값 600원

연락처 : 공주교육대학도서관